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피해 속출

유학생·한국인 가세 ... 대포통장·국가기관 공문까지 이용

광주·전남 지난해 393건 적발, 2007년의 3배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전화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이나 한국인들까지 사기에 가세하는가 하면 대포 통장이나 국가기관 공문까지 이용한 수법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수경찰은 5일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한 중국인 유학생 전모(21)씨 등 중국인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조모(여·41)씨에게 "금융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니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라"라고 속여 대

포통장을 통해 2천500만원을 입금받은 등 지난해 23일부터 5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전씨는 전북 대에 대학원생으로 유학을 왔다가 학교를 무단이탈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전의 보이스피싱 대부분이 중국 현지인들에 의한 것이었지만 유학생이나 한국인들을 이용한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에는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현금을 인출해 중국인 인출총액에 불법 송금한 중국인 유학생 최모(20·전남대 2년)씨 등 3명이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최모(여·

71)씨 등 3명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챙긴 뒤 이를 중국인 총액에 전달한 혐의다.

부동산 매매를 방자한 사기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해 5일 "광고낸 땅을 팔아주세요"며 수수료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챙긴 신모(29)씨를 붙잡았다.

신씨는 생활정보지에 땅을 팔겠다고 광고를 낸 김모(59)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당신의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감정평가사를 소개할 테니 수수료를 보내라"고 요구해 16만원을 입금받는 등 22회에 걸쳐 1억7천960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우체국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대

출알선 ▲법무부나 경찰청 등의 각종 문서를 이용한 사기 ▲전화요금 부과 ▲우편물 반송 등을 미끼로한 '낚시꾼'들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범도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보이스피싱 사범 적발건수는 393건에 달한다. 이는 1년 전인 2007년(118건)에 비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올 들어서만 벌써 75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5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기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원들이 5일 '빙의치료'중 고교생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피의자들을 데리고 진도군 고군면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사람 잡은 무숙인

'빙의 치료' 고교생 살해 암매장**범행 4년만에 검거****전남경찰 3명 구속**

▲빙의(憑依)=흔히 '귀신이 들렸다'고 일컫어지는 현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귀신을 퇴치하는 이른바 '빙의 치료'를 한다며 고교생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무숙인 일당이 범행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빙의치료를 해주겠다"며 학생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무숙인 박모(42)씨와 이모(여·42)씨 부부, 송모(여·32)씨 등 3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최모(52)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2월 13일 담양군 담양읍 한 접점에서 박모(당시 17·고교 1년)군을 빙의 치료하던 중 박군의 심장 주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 등은 또 2005년 2월 14일 새벽 4시에 승용차를 이용해 박군의 사

체를 진도군 고군면 박씨의 선산 인근에 암매장한 뒤 가솔신고를 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박군을 암매장한 지 한 달 뒤 범행이 들롱 날 것을 우려해 박군의 사체를 발굴한 뒤 100여m 떨어진 곳에 다시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건 발생 20일 전부터 이 접점에 머물고 있던 박군이 사라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알라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초등생 납매 살해범은 엄마

의정부 초등생 납매 피사 사건은 우울증에 시달리던 엄마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는 5일 납매의 엄마 이모(34)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8일 오후 7시30분경 의정부시 가남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김모(11)군과 딸(9)을 끈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출소 하루 만에 또 빈집 4곳 털어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다시 빈집털이를 한 30대 절도범이 한 금융기관에서 훔친 동전을 바꾸다가 경찰에 달미.

○영광경찰은 5일 농촌지역 빈 집만을 골라 삼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31)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씨는 지난해 18일 함평군 월야면에 사는 황모(여·80)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훔쳐가는 등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지난달 17일 출소한 김씨는 하루 만에 빈집 4곳을 털었는데, 경찰은 모 금융기관에서 훔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한 CCTV 화면을 확보해 김씨를 검거.

영광=조익성기자 ischo@

화왕산 참사로 화상 광양 40대 끝내 숨져

'화왕산 참사' 당시 부인과 여색태 우기 축제를 구경하러 갔다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치료를 받아오던 정성일(43·광양시 중마동)씨가 사고 발생 25일 만인 5일 끝내 숨졌다.

경남 창원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경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아 오던 정씨가 화상 후유증 등으로 숨졌다.

정씨의 부인 박노임(42)씨는 앞서 화왕산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해 9월 사고 현장에서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연합뉴스



광주 '북부노인복지타운' 기공 광주시는 5일 북구 효령동에서 박광대 광주시장과 송광운 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노인복지타운'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2월 완공 될 이 타운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건강 관리, 여가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게 된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전공과목 교재 싸게 팝니다" 대학생들 책 팔아 용돈벌이

장기불황 여파로 용돈이 궁해진 대학생들이 전공과목 서적과 생활용품 등을 내다 팔아 용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알뜰 장터'에 따르면 전공과 교양서적,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이달 들어 현재까지 658건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131.5건의 게시글이 게재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에 비해 163%(81.5건) 증가한 수치다.

서적은 전공을 포함한 경제·영어

를 구입하는 대신 아닌 책값을 용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대 2년 정모(여·21)씨는 "책관 돈으로 새 학기 전공 서적을 구매했다. 다른 친구들도 중고 서적을 사고 파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학생들 간 일대일 거래가 이뤄지면서 구내서점의 매출도 감소했다. 전남대 구내서점 관계자는 "장기불황 때문인지 학생들이 중고서적 거래가 늘었고, 재분해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면서 매출이 전년에 비해 10~20%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중형 기자 golee@kwangju.co.kr

여교수 살해범 4차례 강·절도

서부경찰 추가 범행 확인

광주 50대 여교수 살해 용의자 박모씨(28)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강도와 절도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은 5일 광주와 나주 지역에서 발생한 4건의 강·절도사건 현장에서 채집된 DNA(유전자)가 박씨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2

일 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안모씨(53·여)의 2층 주택에 침입해 안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스카프를 이용해 양손을 묶어 결박한 뒤 지갑 속에서 현금 8만3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보일러 수리공이었던 박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주시 남평읍 G 보일러 대리점 보관창고에 침입해 신형 가스보일러 4개와 폐가스보일러 30개 등 3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원광은행

신원 비교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신원 비교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95

공무원의 꿈을 이루세요!

2009년 전남지방직 수석합격

이런 기회가 없다면?

이런 기회가 없다면?

이런 기회가 없다면?

이런 기회가 없다면?

이런 기회가 없다면?

개강: 3월 2일 (이론반/문제풀이반)

동부고시학원 동부캠퍼스 바오류

TEL: 233-0309